

개소세 약발 아직은... 완성차 추석특판 '올인'

(개별소비세)

기아차 최대 150만원 특별할인
한국지엠 선착순 4천명 11% 할인
르노삼성 유류비 200만원 지원
쌍용차 최대 200만원 할인 판매



5% 증가한 수치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4만4200대, 해외 17만9448대 등 세계 시장에 전년 동월보다 0.2% 감소한 총 22만3648대를 판매했다. 단 기아차는 개소세 인하와 K9을 비롯한 신형 K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세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국내의 시장에 1만2733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34.6%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가 13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여름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르노삼성의 8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5% 소폭 증가한 7108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은 수출은 56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9% 감소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내수 9055대, 수출 2366대(CKD 포함)를 포함 총 1만1421대를 판매했다.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지만 내수 판매량은 4개월 연속 9000대 이상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세를 달성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한 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내수는 26.1% 감소한 7391대, 수출은 49.8% 감소한 1만5710대를 기록했다. 특히 말리부는 내수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6.3% 감소하며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다.

완성차 업체는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기아차는 최대 150만원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한가위 페스타' 행사를 펼친다.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20만원 추가 할인해주는 '힘내라 대한민국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한국지엠은 이달 한 달간 선착순 4000명에게 최대 11% 할인해주는 '추석맞이 쉼보레 세일 페스타'를 마련했다. 차종별

로 스파크(선착순 2000대)는 7%(최대 140만원) 값을 낮춰 팔며, 말리부(900대) 11%(최대 430만원), 트랙스(700대) 8%(최대 270만원), 임팔라(최대 150대) 11%(520만원), 카마로(50대) 5%(최대 250만원), 이쿼닉스(200대) 최대 250만원 등 대부분 차량이 할인 대상이다.

르노삼성도 다양한 특별 할인 혜택을 진행한다. QM3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유류비 200만원을 지원하며 할부 구매 시에는 36개월 할부 0.9%, 60개월 2.9%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준다. 전기차인 SM3 Z.E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500만원의 할인을, 할부 구매 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소 무이자(36개월)부터 최대 2.9%(60개월)의 금리 적용과 동시에 250만원 값을 낮춰준다.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측면 창문 옵션을 제공한다.

쌍용차는 한가위 세일페스타를 실시한다. 티볼리 브랜드(아머&에어) 일부 모델은 최대 140만원, 코란도C와 투리스모는 20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 9월 한 달간 구입모델에 따라 귀성비를 지원하고, 장기 저리 할부 프로그램을 코란도 브랜드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한전 등 6개 공기업

중소제품 100억원치 추가 구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들이 창업·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제품 100억 원 어치를 추가로 구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결과'에 따르면 23개 중소기업의 31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매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다.

중기부는 4월 시범구매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반기 지원계획에선 20개 공공기관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혀 향후 시범구매 금액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해수부

오늘 열린소통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4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위치한 '광화문 1번가'에서 해수욕장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환기하고 실행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소통포럼을 준비했다. 포럼에는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 연구기관, 비정부기구(NGO),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 일반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문제와 해수욕장 이용문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명태·오징어값 잡아라”... 8400톤 30% 싸게 방출

해수부, 주요 전통시장 우선 공급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 단속

이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이다. 해수부는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특히,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15~30%가량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바다마트(17개소)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 개를 15~40% 할인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



삼성전자, 대학가 채용 상담회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채용 상담회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민족 최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대우·쌍용건설 싱가포르 WHC 종합병원 건설

1800병상 규모... 현지서 본계약

대우건설과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WHC 종합병원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두 건설사는 지난 3월 싱가포르 WHC 종합병원의 LOA(낙찰의향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31일 현지에서 본계약을 맺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가 발주한 WHC(Woodlands Health Campus)는 싱가포르 북부 우드랜드(Woodlands) 지역에 들어선다. 이 병원은 지하 4층~지상 7층, 6개 동, 1800병상 규모(연면적 24만6000㎡)로 조성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싱가포르 WHC 병원 조감도. /대우건설

WHC 종합병원은 급성 및 지역사회 병원, 외래환자 전문치료센터, 장기 치료 센터 및 요양원 등의 별도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첨단 IT가 접목된 대규모 미래형 종합병원으로 지어진다.

중소특화증권사 대출 건전성 규제 완화

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화증권회사의 대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아

닌 증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 왔다.

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됐다.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금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 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한다. 아울러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01@